

#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조보람, 이정민  
이화여자대학교

##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as the Mediator

Bo-Ram Cho, Jeongmin Lee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규명하고,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A대학교 4학년 여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로적응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줄이기 위해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대학차원의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 대학생, 진로교육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84 female students in A university. They responded surveys regarding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indecisio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stress predicted career indecision. Second,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This result examined that career stres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predicts career indecision. In addition, career adaptability could help to increase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by mediation effect. These findings of this research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career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Career indecision, Undergraduate student, Career education

###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사회에 첫 발돋움을 하는 시기이자 인

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시기이다. 즉, 진로 결정 문제는 성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 볼 수 있다[1].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Received 14 March 2017, Revised 12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Jeongmin Lee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jeongmin@ewha.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가장 큰 고민은 진로 결정 및 진로 문제라고 보고되었으며, 많은 대학생이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특성상 진로에 관한 결정과 고민을 유예한 채로 대학에 진학하고, 학점 및 스펙에만 매달린 채 진로미결정 상태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진로미결정은 정체감 위기를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1].

특히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독특한 진로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진로 장벽(다중역할에 따른 역할갈등, 차별적인 조직문화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진로를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여성의 낮은 경제 활동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적인 역할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국의 독특한 사회화 과정으로 여대생들의 진로결정 어려움은 심각하다[4].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진로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진로설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5]. 외국의 경우 외적요인이 여성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나, 한국 여대생들은 개인요인이 진로결정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학 단계에서부터 생애사적 사건들로 진로설계를 수정하는 상황에 보다 빈번히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7] 이에 여대생들의 진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고 진로 고민 해소를 돕기 위해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진로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 요인과 환경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을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3, 8, 9, 10].

먼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교육 및 진로미결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방해하고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1, 11, 12]. 특히, 여대생의 경우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많은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장벽에 부딪쳐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13].

또 다른 예측요인으로 선정한 진로적응성은 기존의 진로성숙이 포함하지 못한 진로 전환과 재선택의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14], 진로 선택에 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량 및 태도로 정의된다[15]. 진로적응성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직업 환경에 걸맞게 적응하고,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므로 진로 결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3, 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적응성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진로적응성은 진로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능력으로 불리기에 주요 진로 변인들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것이 미래의 진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료된다[10].

한편,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적응성이 아닌 진로성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3]. 특히,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 이렇게 세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진로결정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경로를 거치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 노력이자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반두라[18]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 발달 과정에 적용한 것으로 진로와 관련된 선택, 수행 결과간의 관계를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이론이다[19, 20].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자 개인 요인, 사회적 환경, 행동 간의 삼원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학습으로 보았다. 이후에 Lent와 그의 동료들[19]은 사회인지이론에 진로선택 및 개발 과정의 개념을 통합하여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에는 사회인지적 요인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특히, 진로개발과정에 있어서 인지적 변인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1].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요소와 환경적 맥락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즉, 개인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목표 수립과 진로 계획 수립이 용이하게 되며 진로 선택 과정이 촉진 된다고 밝혔다[18].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개인특성 요인으로서는 진로스트레스를, 환경 맥락특성 요인으로서는 진로적응성을 선정하였다.

## 2.2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스트레스는 진로 탐색 및 결정,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나[22], 진로와 관련된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개인의 안녕이 위협받는 것으로 정의된다[23].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되어 신체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 등을 진로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11]. 그러나 진로스트레스가 항상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진로결정 및 진로 관련 문제에 확신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24,25].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진로 결정을 못하거나 지체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직업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우유부단함, 가치관의 혼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진로미결정은 학교 및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6]. 이러한 이유에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선택의 두려움과 어려움 등도 포함된다. 진로선택에 대해 단순히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으로

나누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진로미결정은 진로 결정시 개인이 겪는 문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27].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변인들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관련 변인 중 가장 많은 변인은 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 학년), 부모변인, 의사결정 유형, 효능감 변인, 정체감 변인 등이다[28].

대학생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인에서의 진로를 계획하고 직업과 직장을 결정하는 시기에 놓여있기에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28]. 서울소재 대학교 4학년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1.5%가 진로미결정 상태라고 응답했고, 진로미결정의 이유로 47.7%가 적성과 흥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26]. 이처럼 진로미결정은 상당수의 대학생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진로결정을 돕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8].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으며, 진로관련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12, 29, 30, 31, 32]. 박선희, 박현주[1]와 이현림 외[31]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학업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튜터링 제도 실시나 성격이나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면담제나 대학의 심리상담 시스템의 점검 등을 제안하였다[32]. 배영자[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차리[2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으며 과도한 진로스트레스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주고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진로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이러한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데, 이상희[3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학생은 약 40%의 예측력을, 여학생은 약47%의 예측력을 나타내면서 진로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희, 박현주[1]의 연구에서도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스트레스를 나타냈고 이러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2.3 진로적응성과 관련 선행연구

최근 진로 결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 주목받고 있다. 진로적응성은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강조되어온 진로성숙도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34]. 진로성숙도는 성공적인 진로 준비 및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각 발달 단계에서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31]. 그러나 진로 선택 후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진로 발달 이론을 수정하였고[32], 수정된 이론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진로 전환과 진로 재순환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진로적응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33]. 즉, 진로적응성은 기존의 진로성숙도가 포함하지 못한 진로 전환과 재선택의 개념을 포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적절하게 변화하는 태도 및 역량을 의미한다[32].

본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이유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관점에서 진로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적 변인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인 진로적응성은 맥락변인으로 내적변인의 긍정적 촉진 변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대한 예측력과 더불어 진로적응성의 매개변인 여부 검증 등을 통한 촉진이나 보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성은 심리적 자원이므로 심리적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는 적응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38], 선행 연구에서 진로적응성과 성공적인 진로 발달의 관계가 나타났다[3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40, 41]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로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진로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2].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적응성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3, 10, 42, 43]. 김수영, 배성아[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다. 조현재[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37]의 국가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이 진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진로적응성이 높은 국가고시 준비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편안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적응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불확실한 결과에 도전할 때 필요한 요소이자 진로적응성을 높여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42].

아직까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진로적응성, 진로 결정 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있었다[44]. 연구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은 부분매개효과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인 경향성을 단기간에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매개변인인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운다면 진로결정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시에 위치한 A대학교 4학년 여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두 취업준비중이거나 진로선택을 앞둔 학생들이었으며, 2016년 5월 한달동안 진로미결정,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17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연구도구

### 3.2.1 진로스트레스 측정도구

박희락[23]의 대학생용 진로스트레스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 모호성 스트레스(예: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알지 못해서 걱정스럽다), 취업 압박 스트레스(예: 직업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 진로 정보 부족 스트레스(예: 나의 진로를 위해 도움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 외적 갈등 스트레스(예: 주위 사람들이 나의 진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내적 갈등 스트레스(예: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의 5요인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진로 모호성이 .92, 취업압박이 .87, 진로정보부족 .89, 외적갈등 .79, 내적갈등 .70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이다.

### 3.2.2 진로미결정 측정도구

탁진국,이기학[45]의 연구의 총 22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보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척도로 개발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진로미결정은 5개요인(직업 정보 부족 6문항(.85), 예: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자기 명확성 부족 4문항(.89), 예: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78), 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필요성 부족 4문항(.74), 예: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외적 장애 요인 4문항(.66), 예: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는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분없이 진로미결정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 3.2.3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Rottinghaus등 (2005)이 개발하고 최옥현,김봉환[34]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3개 하위척도 중 진로적응성 요인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진로적응성 문항은 개인이 미래 변화에 적절

히 대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스스로의 능력(예:나는 새로운 직업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새로운 직무 책임에 대한 편안함 정도(예:나는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들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진로 계획 변화에 따른 회복 능력(예: 사람들은 내가 진로 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말 할 것이다) 등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적응 능력과 태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원 도구의 내적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3.2.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간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46]의 Z공식을 적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학습자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직업 압박 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 $r = -.11, p > .05$ ), 외적 갈등 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 $r = .06, p > .05$ ) 사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제외한 세 변인의 평균의 경우, 진로적응성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스트레스(3.24), 진로미결정(2.69)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보다 크고 분산 팽창요인 값은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진로스트레스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예측력 검증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indecision (n=174)

Independent variable	SE	B	t	p	R <sup>2</sup> (adj,R <sup>2</sup> )
Career stress	.039	.785	16.630**	.000	.617 (.614)

\*\* p<.01

회귀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 = .785, p < .05$ ).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61.7%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2>는 진로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Table 2>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indecision(sub-factor) (n=174)

Independent variable	SE	B	t	p	tolerance
Career ambiguity	.184	.568	8.162**	.000	.296
Job pressure stress	.166	.089	1.679	.095	.510
career information shortage stress	.206	.083	1.337	.183	.371
external conflict stress	.160	.089	1.857	.065	.623
internal conflict stress	.193	.173	3.394**	.001	.552

\*\* p<.01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진로모호성( $B = .568, p < .01$ )과 내적갈등스트레스( $B = .173, p < .01$ )가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하위변인 중 진로모호성과 내적갈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 4.3 진로스트레스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예측력 검증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n=174)

Independent variable	SE	B	t	p	R <sup>2</sup> (adj,R <sup>2</sup> )
Career adaptability	.018	-.210	-2.822*	.044 (.039)	7.966

\* p<.05

회귀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 = -.210, p < .05$ ).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7.96%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4>는 진로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Table 4> Predictability of career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n=174)

Independent variable	SE	B	t	p	tolerance
Career ambiguity	.089	-.665	-5.555**	.000	.301
Job pressure stress	.084	.115	1.300	.195	.549
career information shortage stress	.097	.100	1.038	.301	.466
external conflict stress	.072	.310	3.946**	.000	.700
internal conflict stress	.100	-.063	-.733	.465	.581

\*\* p<.01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진로모호성( $B = .568, p < .01$ )과 외적갈등스트레스( $B = .173, p < .01$ )가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하위변인 중 진로모호성이 낮을수록, 외적갈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4.4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의 다중회귀분석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41]의 매개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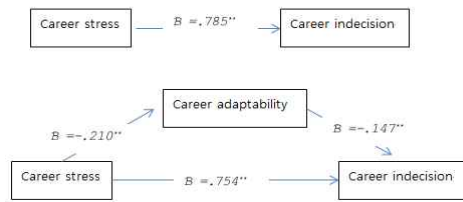
<Table 5>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1단계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210, p < .05$ ). 2단계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785, p < .05$ ). 3단계로 진로적응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147, p < .05$ ). 3단계의 진로스트레스의 효과크기는 2단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단계  $B = .785 > 3$ 단계  $B = .754$ ). 이러한 단계적 검증을 거쳐 진로적응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직접적으로도 예측하며 진로적응성의 매개에 의해서도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설명력은 64.7%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n=174)

step	Variables	SE	B	t	R <sup>2</sup> (adj.R <sup>2</sup> )	F
1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018	-.210	-2.822**	.044 (.039)	7.966
2	career stress→ career indecision	.039	.785	16.630**	.617 (.614)	276.566
3	career stress→ career adaptability →career indecision	.039 .160	.754 -.147	16.009** -3.111**	.647 (.643)	150.096

\*\*  $p < .0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Z = -3.0588, p < .01$ ). 다음은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고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A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18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17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 진로적응성,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스트레스가 낮고, 진로적응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이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40, 41]과 일치하는 것이며,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존 보고들[1, 12, 29, 30]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학생들과 자신이 원하는 진로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된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사회초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진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연구들[12, 3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진로보호성( $B=.568, p<.01$ ), 내적갈등스트레스( $B=-.173, p<.01$ )가 진로미결정에 유의하게 예측했다. 유지선[32]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잘하지 못한다고 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외부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성격 등과 갖은 내적갈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아 진로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진단하여 진로보호성과 내적갈등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써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진로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진로와 관련된 내적 동기를 줄 수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주체성과 적절한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47].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목표나 진로준비행동 등의 영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3]. 즉,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내적동기를 잘 유지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주체적으로 노력 할 수 있는 주체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로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여,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노력과 지도가 요구된다[16].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48]를 바탕으로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바이다. 이처럼,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선택 및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를 예측한

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45]. 여대생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로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에 취약해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중 진로보호성( $B=.568, p<.01$ )과 외적갈등스트레스( $B=.173, p<.01$ )가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스스로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적성 검사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대외활동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진로보호성을 낮추어야한다. 한편 적절한 수준의 외적갈등 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적응성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을 높이고, 진로에 몰입하거나 준비하는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9, 39, 45]. 이로써 진로적응성이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여대생의 진로 발달과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스트레스도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적응성을 매개할 때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준비 및 계획을 잘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40, 54]. 예를 들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멘토 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가 있다[55].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리 대안을 검토하고 계획 해본 사람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진로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성은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52], 복잡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기에 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53].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스트레스를 낮



추기 위해 성격적인 요인 즉 내적인 것과 관련하여 자아 존중감 높이기, 우울, 무망감 등을 낮추는 노력과[54] 진로에 대해 명확히 하여 진로보호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적응성의 경우 적절한 외부갈등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아 존중감, 언어적 격려, 자기주도학습 요인 등도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독립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55].

본 연구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진로적응성은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된 진로성숙의 개념이 아닌,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진로적응성을 연구하였고, 진로결정을 앞둔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성별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지지할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진로의사결정 등의 주요 변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 교육 및 지원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대학교 4학년 여대생만을 임의로 선정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지역, 학년, 학교, 성별)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례를 확보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개인의 지각이 객관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 실험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진로준비행동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REFERENCES

- [1] Sun-Hee Park & Hyeon-Ju Park,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 No.1, pp.67-81. 2009.
- [2] Na-Rae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career adaptability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3.
- [3] Soo-Young Kim & Sung-A Bae, "Colleg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12, pp. 429-448. 2014.
- [4] Yoon-Woo Lee, "Development of vocational card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activity."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2010.
- [5] Soo-Bun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2, pp.49-68. 2016.
- [6] Sae Keen An & Hyeon-Wook Kim, "The structural analysis of impact factors about career deci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7, pp.339-358. 2016.
- [7] Bong-Whan Kim,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4, pp.93-111. 2010.
- [8] Min-Sun Kim, "The Relation between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4, pp. 145-166. 2014.
- [9] Hyeon-Ju Lee, "The effect of self-handicapping strateg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3, pp.21-39. 2011.
- [10] Hyeon-Jae Cho, "The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by self-efficacy, on career indecision."

-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4, pp.59-77. 2015.
- [11] Myeong-Sook Yoon & Hyo-Sun Lee, "Job seeking and considering suicid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proceeding, pp.85-104. 2011.
- [12] Yeong-Ja Ba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on career indecision of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in Daegu, Gyeongbuk :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2, No. 2, pp. 217-242. 2016.
- [13] Sook-Jeong Lee,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Vol.48, No.2, pp.35-63. 2009.
- [14] Yoon-Jeong Shi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call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1, pp.209-226. 2013.
- [15] M. L. Savickas, "Career adaptability: An interactive construct for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5, No.3, pp.247-259. 1997.
- [16] Ku-Ha Choi,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2016.
- [17] Soon-Hee Lee & Eun-Ryeong Son, "The relation between optimism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scale and career adaptability: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4, pp. 2525-2544. 2013.
- [18] A. Bandura,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Vol.44, No.9, 1175-1184. 1989.
- [19]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1994.
- [20] K. G. Schaefers, D. L. Epperson, & M. M. Nauta, "Women's career development: can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predict persistence in engineering maj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4, No.2, pp.173-183. 1997.
- [21] Su-Yeong Park,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career adaptability for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6.
- [22] Yoo-Jin Seo, "The effect of career variable and optimism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tres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7.
- [23] Hee-Rak Park, "Predi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via career stress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9.
- [24] Yoo-Ri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7.
- [25] Jin-Hee Lee, "The convergence study of life stress and health clinic user satisfaction in female students: focused on the one women's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 5, pp. 89-96. 2016.
- [26] Eun-Yeong Kim,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relatedness and career decision competence on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1, pp.79-96. 2010.
- [27] Seong-Sim Lee, Ji Eun Joo & A-Yeong Kim. "Test of construct equivalence of the career indecision scale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comparison of latent mean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0, No. 3, pp. 529-548. 2006.
- [28] Cha-Ri Jeo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7.
- [29] Na-Rae Kim & Ki-Hak Lee, "Relationship

-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chool*, Vol.9, No.2, pp.175-191. 2012.
- [30] Eun-E Jeong, "The effect of stress and everyday creativit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19, No.2, pp. 143-162. 2007.
- [31] Hyun-Rim Lee, Soon-Mi Kim, Mi-Sook Cheun, and Sook-Kyung Choi.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4, pp.59-80. 2008.
- [32] Ji-Sun Yoo, "The influence of job search stress on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of secretarial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Vol. 21, pp. 3-23. 2012.
- [33] Sang-Hee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arent-related career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3, pp.1461-1479. 2012.
- [34] Ok-Hyeon Choi & Bong-Hwan Kim, "Career optimism and adapt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career futures inventory(CFI)."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3, pp. 821-833. 2006.
- [35] Super, D. E, "The stress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1957.
- [36] D. E. Super & E. G. Knasel,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9, No.2, pp.194-201.1981.
- [37] Hyeon Park, "The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career barriers, career compromise on career decision status of national examinations prepar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4.
- [38] T. W. Ng, & D. C. Feldma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role identity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1, No.1, pp.114-134. 2007.
- [39] E. J. Porfeli, & F. W. Vondracek, "Career development, work, and occupational success." *Handbook of Research on Adult Learning and Development*, pp.412-436. 2009.
- [40] Eun-Ryeong Son & Sun-Hee Lee, "The effects of optimism on career decision scale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and career barrie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3, pp.181-199. 2012.
- [41] E. K. Pulakos,, S. Arad, M. A. Donoval, & K. E. Plamondon, "Adaptability on the workplac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adaptive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5, No.4, pp.612-624. 2000.
- [42] Min-S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t time perspective and career indeci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 12, pp. 349-372. 2016.
- [43] M. L. Savickas,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47-183. 2013.
- [44] Jae-Yeon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6.
- [45] J. K. Tak, & K. H. Lee, "An exploratory study: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scale." *Digital Business Studies*, Vol.1, No.1, pp.167-180. 2005.
- [46]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47] Jepng-An Yoon & Ji-Yoon Seo, "The effects of work hope and career motivation on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11, pp. 55-81. 2013.
- [48] M. M. Chemers, L. Hu, & B. F. Garcia,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3, No.1, pp.55-64. 2001.

- [49] Kyeong-Hee Seo, Won-Jun Kwok, & Ji-Hyeon Sim,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5, No.4, pp.57-88. 2015.
- [50] In-Ho Jeong & Byeong Chul Im, "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 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3, No. 3, pp. 13-19. 2012.
- [51] Yoon-Kyeong Noh & Ki-Hak Lee, "The effect of mentor experience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3, 233-252. 2012.
- [52] Eun-E Jeong, "Mediation of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2, pp. 1-21. 2014.
- [53] Min-S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t time perspective and career indeci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2, pp.349-372. 2016.
- [54] Sang-Yoon Bae & Seung-Hee Kim,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4, No.12, pp. 323-333. 2016.
- [55] Seong-Hee Park & Jae-Hee Ahn,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4, No.8, pp. 69-80. 2016.

조 보 람(Cho, Bo Ram)



- 2010년 2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Finance 학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스마트러닝, STEAM, 교수설계, 창의성, 진로교육
- E-Mail : esprit1003@naver.com

이 정 민(Lee, Jeongmin)



- 200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학사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석사
- 2005년 ~ 2009년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육심리 및 교육공학 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창의성, 학업정서,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 E-Mail : jeongmin@ewha.ac.kr